

합영기업에서 재정상태표와 그 작성방법

량 미 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계산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것은 기업체의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입니다.》(《재정은행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단행본 13페이지)

합영기업에서 재정상태에 대한 분석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재정상태표를 정확히 작성하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재정상태표를 정확히 작성하는것이 합영기업의 재정상태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합영기업의 재정상태표는 결산기간말 합영기업의 재정상태를 경영재산과 자금원천의 호상관계속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회계결산서의 기본문건이다.

합영기업의 재정상태표는 일정한 시점현재 합영기업의 재산과 자금원천의 구성과 구조, 경영활동에 대한 자금보장과 그 재정적결과, 채권채무관계, 지불능력 등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수 있게 함으로써 합영기업의 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리용된다.

합영기업의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합영기업의 회계결산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기업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데서는 일정한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동안의 합영기업재정활동정형을 보여준다면 재정상태표는 일정한 시점현재의 기업재정상태를 보여준다. 즉 기업의 재정형편을 정적인 견지에서 보여주는것이 재정상태표라면 동적인 견지에서 보여주는것이 손익계산서이다.

이로부터 재정상태표는 결산기의 마지막날현재의 기업의 재산의 크기와 그 원천을 나타내는것을 사명으로 하게 되고 손익계산서는 결산기의 첫날부터 결산기의 마지막날까지의 수입과 비용 그리고 리윤 등을 나타내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합영기업에서 재정상태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제시식과 보고식이라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제시식은 차방과 대방으로 나누어 기입되는 제시의 형식에 따라 보고자료들을 차방과 대방으로 나누어 배열하는 결산서작성방법을 의미하며 보고식은 일정한 순서대로 연속배열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재정상태표를 제시식으로 작성할 때에는 왼쪽(차방)에는 기업의 재산을, 오른쪽(대방)에는 기업의 채무와 자금(자본)을 기입할수 있으며 보고식으로 작성할 때에는 재산과 채무, 자금(자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기입할수 있다.

재정상태표의 재산부분작성은 고정재산과 류동재산순서로 분류하고 세분항목별로 금액을 기입하여 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며 채무부분은 고정채무와 류동채무의 순서로 분류하고 세분항목별로 금액을 기입하여 채무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자금(자본)부분은 등록자금(자본), 초과금, 리윤적립 및 분배금, 미처분리윤 등의 순서로 구분하여 금액을 올리고 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다.

이때 재산총액과 자금원천총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며 외화로 기입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당해년도 국가기준환율에 따르는 환산된 금액이 반영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계시식은 이해하기가 쉽고 통속적인데 비하여 보고식은 한눈에 잘 안겨 오지 않는 부족점이 있다. 이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에서는 기업들이 결산서를 작성할 때 재정상태표는 계시식으로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합영기업에서는 재정상태표를 작성할 때 대체로 계시들을 류동성배렬법으로 배열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표시방법에 따라 류동성배렬법과 고정성배렬법을 리용할 수 있다.

류동성배렬법은 재정상태표를 작성할 때 계시들을 류동성이 높은 재산이나 채무부터 배열하는 방법이다.

얼마나 빨리 또 쉽게 류동할 수 있는가는 재산마다 차이가 있다. 류동성의 견지에서 기업의 재산을 분석해보면 류동성이 높은 재산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류동성이 낮은 재산도 있을 수 있다.

실례로 현금은 원료, 자재보다 류동성이 높으며 또 원료, 자재는 기계설비보다 류동성이 높다.

류동성은 재산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있다. 기업의 채무중에는 단기간내에 물어주어야 할 것도 있지만 1년 이후의 먼 후날에 처리하여야 할 채무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단기간내에 물어주어야 할 채무는 1년 이후에 처리하여야 할 채무보다 류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류동성배렬법과 대응되는 표시방법은 고정성배렬법이다.

고정성배렬법은 재정상태표의 항목들을 화폐재산으로 전환하거나 지불해야 할 기간이 오랜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자기자금과 같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자금이 비용으로서의 배분기간이 오랜 고정재산에 투하된다고 보고 이것들을 처음에 배열한다. 그리고 다음순서로 사채처럼 지불기한이 긴 타인자금과 비용으로서의 배분기간이 짧은 류동재산이 배열된다. 이러한 배열법에 의해 기업의 안정도가 표시된다.

그러나 타인자금, 채무의 지불기간 또는 재산이 비용배분기한에서는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이 없으며 많은 경우 관습과 제도적인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류동성배렬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기, 가스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들과 같이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특히 높은 기업들에서는 고정성배렬법이 리용되고 있다.

류동성배렬법과 고정성배렬법은 기업의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에서 류동항목이 중시되는가 아니면 고정항목이 중시되는가에 따라 그 적용이 결정된다.

사실 류동성배렬법을 적용하든 고정성배렬법을 적용하든 기업의 재정상태, 재산보유상태나 그 자금원천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류동성배렬법과 고정성배렬법은 단지 재산이나 채무, 자본 등의 배열순서를 달리 할뿐이지 그의 총체적인 크기나 구성내용 등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류동성배렬법과 고정성배렬법이 재정상태표작성에서 아무러한 의의도 가지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류동성배렬법과 고정성배렬법은 재정상태표를 보는 리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재산과 자금원천상태를 보다 잘 파악하도록 하는데 일정한 작용을 한다. 다시말하여 류동항목에 대하여 더 관심하는 경우에는 류동성배렬법이 재정상태를 파악하는데서 효과적이며 고정항목에 대하여 더 관심하는 경우에는 고정성배렬법이 더 효과적이다.

우리 나라 국영기업들의 회계결산서작성에서는 고정성배렬법이나 류동성배렬법과 같은 개념들이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상태표에서의 항목들의 배렬순서를 보면 대체로 류동성배렬법과는 거리가 멀고 고정성배렬법에 가깝다고 볼수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국영기업소들에서는 지불능력에 대한 평가타산문제가 자본주의기업들에서처럼 그렇게 첨예하게 제기되지 않기때문이다.

국영기업소들은 국가의 계획밑에서 모든 경영활동을 계획적으로 진행해나가므로 지불능력이 낮아져 파산당하는 현상이 없으며 지불능력의 부족으로 하여 경영활동에서 지장을 받은 일이 매우 드물다. 국영기업소들이 국가계획에 따라 생산능력을 확장하거나 생산량을 늘이는것과 관련하여 자금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계획적으로 자금을 보장받아 경영활동을 해나갈수 있다.

합영기업에서 류동성배렬법에 따르는 배렬은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다.

생산경영활동과정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순환과정에 현금으로 돌아오는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순환과정에 있는 채무에 대하여서는 순환과정에서의 현금지출순서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수 있다.

한편 대부금과 같이 생산경영활동과 직접적인 련관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서는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방식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결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합영기업에서는 재정상태표를 국가의 법과 규정대로 정확히 작성함으로써 재정상태 분석을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야 한다.